

자유로운 전과제도의 빛과 그림자

학생 자율과 대학의 역할 절충안 마련돼야

이번 학과편제 및 정원조정 일환으로 폐과 대상학과를 선정하는 데 학교 측은 1학년용을 제외한 학과 정원 대비 재학생 수를 주요지표로 삼았다. 사실 비인기학과의 재학생이 점차 줄어드는 데에는 우리학교의 자유로운 전과제도의 영향이 크다.

우리학교의 전과제도는 2학년 말 1회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에서 지난해 3월, 2학기 말부터 5학기 말까지 신청가능기회를 4차례로 늘리고, 평균 학점 2.5 이상이라는 성적제한과 학과지도교수의 승인 절차를 없애면서 기회가 대폭 확대됐다. 현재 우리학교와 서울대, 연세대 등 전과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대학은 재학생 중 전과를 단 한번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기회에서는 타 대학의 경우가 대부분 1~2회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학교의 전과제도는 매우 자유로운 편이다.

이에 대해 임호일(독어독문학) 교수는 "전과 신청이 가능한 시기가 확대되면서 예전 같으면 2학년 말에 잠시 이수했던 분위가 매 학기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인기학과로 전과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비인기학과에 남아있는 학생들은 자신이 낙오자라는 열등감을 갖게 돼 전공공부에 전념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이러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의욕을 저하시킨다"며 자유로운 전과제도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전과기준을 완화한 데에는 정작 학과 공부에 적응을 하지 못해 전과를 해야만 하는 학생들이 부진한 출석률 등으로 성적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과가 불가능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과 신청 시기의 확대도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의도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학교 11개 단과대학 중 전출 학생 수가 많은 곳으로는 불교대, 문과대, 생명자원과학대를 꼽을 수 있다. 불교대와 문과대가 취업과는 거리가 있는 인문 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경제·경영 관련 학과로 전과를 선호하는 반면, 자연계열인 생명자원과학대의 경우 교차지원으로 입학한 인문계열 학생들이 전공에 적응하지 못하고 전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황민철(불교4) 불교대 부학장 회장은 "원래 학과에 남아있는 학생들의 경우 타 학과로 전공을 변경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원망의 마음도 없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다.

정작 전과제도를 직접 겪어 되는 학생들은 전과제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타 학교에 비해서 자유로운 제도에 대한 열려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현행 제도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 이민정(국제통상3) 양

은 "다른 학과에서 전입해오는 학생들도 많고 전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이 원하는 학과로 옮겨 공부할 수 있는 점은 만족스럽다"라고 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번 학기 문과대에서 사범대로 전과한 한 학생은 "나 역시 전과를 했고 연계전공이 미흡한 우리학교에서 전과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외부에서조차 우리학교의 지나치게 자유로운 전과제도가 부각되는 것은 학교 이미지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 필요할까?

서울대와 성균관대 등은 신입생 선발 시 학부로 모집하는 단과대의 비인기학과 정원 중 일부를 입학 후 학적변경이 불가능한 '전공예약제'로 운영해 인문학과 비인기학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학교도 불교대에 한해서 수시 2학기 모집 때 '불교계주전전행'으로 선발한 학생의 전과를 금지하고 있다. 학생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학문을 추구해야하는 대학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전과제도를 없앨수는 없지만 입학정원의 일부에 한해 전공변경을 제한하는 등의 절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선담은 기자 ssundam@dongguk.edu



"의견 모아 큰 소리" ... 전체 학생대표자 회의가 지난 11일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재직인원 92명 중 75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2008학년도 학제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과 그에 따른 향후 학생회 활동방향 등을 결정했으며, 2007년도 등록금 할인을 수용하기로 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학내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칙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저자와의 대화' 김훈 초청

중앙도서관(관장=석원경·화학)이 오는 18일 오후 1시 중앙도서관 2층 A/V실에서 학내에 책임기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제1회 저자와의 대화'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칼의 노래', '남한산성'의 저자인 소설가 김훈의 강연 및 사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70명을 모집 받는다. 또한, '작가에게 묻고 싶은 한마디'를 중앙도서관 이메일로 보내 참신한 질문으로 채택된 학생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지급되고, 정시에 참석할 학생들에게는 추첨하여 책과 상품권이 증정된다.

정각원 다양한 행사 개최

오늘(14일)부터 오는 24일 부처님 오신 날까지 정각원(원장=박종호) 주최로 많은 행사가 열리고 다양한 법회가 봉행될 예정이다.

오늘 오후 5시 체육관에서 수계 대법회가 진행된다. 전개서는 월정사 주지인 정념 큰스님이 맡는다. 오후 6시 30분에는 불상 앞에서 연등 점등식이 열리며, 오후 7시 30분 만해광장에서는 CBM(Contemporary Buddhist Music)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CBM 페스티벌은 그간 불교행사의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MC스나이퍼, 데프콘과 잔물고기그룹인 SPC, AJAX와 대한소년소녀합창단이 출연한다. >관련기사 8면

오는 16일 오후 4시에는 정각원 법당에서 '불교와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5월 정기법회가 열린다.

오는 20일에는 연등축제가 진행된다. 동대문운동장에서 조계사까지 저녁 7시부터 제등행렬이 이뤄진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24일 오전 8시 30분에 정각원 법당에서 봉행된다.

15일부터 사흘간 목격대동제 열려

목격대동제가 제39대 총학생회(회장=정형주·통계4)의 주최로 내일(15일)부터 3일간 열린다.

축제 첫날인 15일에는 오후 5시 30분부터 목격대동제 개막식이 만해광장에서 진행된다. 이날 공연은 △ODC 댄스페스티벌 △팝군과 웅의 댄스배틀대회 △웃찾사&개콘 합동콘서트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16일에는 저녁 6시 30분부터 DUBS 주최로 제1회 영상 페스티벌이 열린다. 여기에서는 'VJ특공대' 형식으로 영상전이 진행되며, 에피쿠라가 초대가수로 출연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17일 저녁 6시 30분부터는 제26회 백상응원대제전이 펼쳐진다. 개그맨 박성호의 사회로 진행되며, 가수 윤하, 일렉 밴드 Rose, 어린이응원단이 출연한다.

또한 3일간 팔정도에서도 다양한 행사

가 진행된다. 15일에는 격파, 가위바위보 등이 진행되며 16일, 17일에는 자야도취 노래방, 자유발언대, 10:10미팅, 노예팅이 열린다. 이 행사에 참가를 원할 경우 15일 12시 30분부터 팔정도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선무부, 검도부, 마술동아리, 법대 율동패의 공연이 진행되며, 오후 2시 30분부터 영화 'Hot Fuzz'의 시사회가 중강당에서 열린다. 영화표는 15일 오후 12시 30분부터 팔정도에서 선착순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한편, 총여학생회(회장=변승희·경영4)도 많은 행사를 진행한다. 3일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역경원·동불·여학생커리어개발센터 공동주최 연등, 축원본, 십자수 공모전 △성의식조사 및 여학생 복지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다. 또한 15일, 16일 양일간 11시부터 '타롯잡보기'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학제 개편안 5월내 확정 해당 학과 반발 본격화

지난달 20일 학과편제 및 정원조정안이 발표된 이후 해당 학과 및 대학원 등은 이번 학제개편안의 내용인 폐과와 트랙제 도입에 반대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해 왔다. 학내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학교 측은 지난 2일부터 학제개편안과 비교적 관련이 적은 법과대, 경영대, 사범대를 제외한 8개 단과대학 교수, 학생대표들과 간담회를 마련해 왔다. 하지만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결정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내용이 미리 공개되는 일이 드물었던 이전과 달리 이번 시안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과 회의를 진행하는 등 의사결정과정의 진일보했다"는 평도 있지만 "회의에 참석해도 매번 학교의 입장만 재확인하게 될 뿐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 학교 측이 귀 기울이지 않는 상황은 반복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폐과대상으로 꼽힌 독어독문학과와 북한학과는 규탄 성명 발표 이외에도 활발하게 입장을 표출해 왔다. 독어독문학과 동문 및 재학생 학부모는 지난 3일 학교 측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독문과 동문들은 "학과가 발전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예고 없이 폐지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학교는 "수년간의 추세를 파악하여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북한학과도 교수, 학부, 졸업생, 대학원생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학과 폐지반대를 위한 연합총회'를 열었다. 안홍승(북한4) 북한학

과 학회장은 "지난 8일자로 북한 학과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면담 및 공청회 요청을 했지만 현재까지 학교 측은 수락 여부조차 답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측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이상 내부논의를 거쳐 이번 주 안에 가시적인 폐과반대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조정으로 감축되는 인원이 제일 많은 문과대는 지난 11일 본관을 향해 물풍선을 던지는 시위를 벌였다.

총학생회(회장=정형주·통계4)는 이날 개최된 전체 학생대표자 회의에서 학제개편안의 수용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전체의견이 반대로 기울자 향후 학생회 활동 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학생총회 및 본관점거와 같은 물리적 투쟁'은 부결됐지만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학교 측과의 지속적인 협상'과 '실문 조사를 통한 여론수렴'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당초 이달 14일까지 이번 학제개편을 확정지으려 했지만 단과대 학장 및 주임교수 등 대표교수들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 조정을 거친 후 5월 안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담은 기자 ssundam@dongguk.edu



지난 11일 본관앞에서 열린 문과대 시위

새로운 엠블렘 공개



우리학교 엠블렘이 건학 101주년을 맞아 새롭게 단장했다. 새 엠블렘은 기존 100주년 엠블렘의 코끼리 이미지를 살리고 100주년과 기념을 뜻하는 로고를 삭제, 108프로젝트의 비전인 'World Wide Dongguk'을 삽입하였다. 이번 엠블렘은 학교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학교 UI(University Identity) 재정립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동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돼 약 1,600명이 참여한 'UI개발에 관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 개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전략홍보실 류병성 과장은 "사업이 시행된다면 새로운 UI는 1년 정도의 개발을 거쳐 내년 건학 102주년 기념식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 응시자격 1학년 재학생
원시접수 5월 30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전학원시 5월 30일 수요일 오후 6시
원시면담 SC제일은행 옆 본관 1층 동대신문사 사무실
http://www.dgupress.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문의 www.dgupress.com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TEL: (02) 2260-3491-2 E-mail: dgupress@dongguk.edu
혜택 소정의 활동비, 장학금 지원
교내 국제교육원 주관 어학특강 방중 무료 수강, 언론 교육기관 무료 수강
\* 보호자 월 의료보험료 5만원이하인 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 감면

지난 동대신문 제1443호 7면 상록원 구조개선 관련 기사 중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관공비 유용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관공비 유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등록금 인상률 1.5% 조정' 기사 중 '총학이 제안하는 교육환경 및 학생복지 개선 사업비'를 '총학생회 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교육환경 및 학생복지 개선 사업비'로 수정합니다.

커버스토리
고민, 함께 나눠도 될까요?
똑똑,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취업난을 비롯한 각종 스트레스로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때문에 학생들의 각종 고민을 상담해주는 학생상담센터의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 우리 신문은 대학생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학내 학생상담센터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
관련지면 4면 커버스토리면
- 학생과 상담센터 서로에게 한발짝 다가서다
-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사업개발본부장 인터뷰

“기존의 틀 벗어난 사업 추진할 것”



박승성(국제통상학) 본부장

- 신설된 사업개발부의 역할은.  
= 종전에 대외협력처가 담당하던 발전기금의 모금만으로는 장학금 수여나 재정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학교 재정의 등록금 의존율을 줄이기 위해 본부 내에 사업개발팀을 신설했다.

사업개발팀은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1,600만 여평의 토지를 어떻게 수익성 자본으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 연구·추진하고, 학교의 재정확충을 위해 사업개발 및 금융

투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재단 소유 부동산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높일 것인지.  
= 먼저 학교 소유 수익용 토지 중 부당하게 종부세가 징수되는 부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우리학교 소유 토지 중에는 상수원 보호법이나 그린벨트 등의 규제로 묶여있는 땅이 많다. 때문에 사업을 기획하기에 앞서 교육부 등에 규제완화 신청을 한 상태이다. 규제가 풀려야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총무로 영상센터의 활용과 일산의료병원 인근 학교소유토지에 실버타운이나 메디컬 센터 등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발전기금 유치 방식이 요구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 ‘등록금 한 번 더 내기 운동’과 ‘사랑의 저금통’ 사업에 모든 동국인이 동참하도록 참여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발전기금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불차정년지도자 육성 장학’을 신설했다. 이 장학은 전국의 사찰 및 불자들을 대상으로 발전기금을 모금하는 것이다.

지난 3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수도권 10여 곳 사찰 주지스님이 약 2억 여원을 약정한다 밝혔다.

‘텔레이 운동 기부’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학교 동문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동문들이 많다. 종래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던 동문들을 통해 다음 기부자를 소개받으는 형식으로 재계, 법조계 등 각 분야의 동문들이 발전기금을 기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선담은 기자 ssundam@dongguk.edu

운영지원본부장 인터뷰

“고객서비스 정신 백분 발휘”



백경선 본부장

- 운영지원본부의 새로운 역할과 본부장으로 앞으로의 각오는.  
= 오영교 총장 취임 후 직제개편에 따라 권위적인 인상이 강했던 기존의 ‘총무처’라는 이름에서 고객서비스정신을 더욱 강화시킨 ‘운영지원본부’라는 명칭을 새로 만들었다. 학교의 전반적인 사업에 서비스정신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지해주는 역할이다.

새로운 이름에 걸맞게 학내 구성원들의 답답함을 최소화 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해 나가겠다.

- 신(新) 인사제도와 연봉차등제도를 새로 도입했는데.  
= 새로운 인사제도의 기본 골격은 △조직표표와 개인의 목표 일치 △평가제도 개선 △체계적 교육 훈련이다. 이 제도는 전 직원을 상대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며 자발적인 인사제도 개선을 이루어 냈다.

이에 따라 개인평가와 팀 평가를 통해 직원의 능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개인평가는 상사, 동료, 하급자로 구성된 평가단으로 360도 다면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한 연봉제는 팀제 도입과 함께 맞물려 개인평가와 팀 평가 결과를 연봉 결정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조직력을 백분 발휘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

- 입찰형식을 다양화시킴으로써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 그동안의 구매절차에서 역점은 ‘투명성’과 ‘신속성’이었다. 다양한 입찰형식을 도입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과 공사의 질까지 고려할 수 있다. 학교 공사는 지금까지 무한경쟁으로 최저가의 입찰이 이루어 졌는데 앞으로는 제한경쟁입찰과 적격심사제를 통해 공사실적 등의 기준을 정해 검증된 기업을 선정할 것이다. 대학의 특성상 짧은 기간 동안 내실 있는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입찰형식을 통해 공사의 질을 담보 받을 수 있다. 입찰형식의 다양화는 빠르면 이번 여름방학에 진행될 상록원 구조 변경 공사부터 도입될 것이다.

최미혜 기자 Imisonaral@dongguk.edu

학림관공간 재구성 결정

비효율적인 공간사용 문제가 지적돼 왔던 학림관 공간이 대폭 조정될 예정이다.

공간조정 주 내용은 지금까지의 공간배치 기준인 11평을 8.7평으로 조정하고, 각 학생회실과 교수연구실 등 강의실 외의 공간을 축소시켜 멀티미디어제작실, 수업 행동분석실, 학과 사무실, 학과 공부방 및 세미나실 등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사범대 학생들의 임용고사를 위한 ‘임용지원센터’도 만들 예정이다. 대부분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2평의 넓은 공간을 사용하던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수학교육과의 학생회실을 비롯해 11평을 사용하던 교수연구실, 교육학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의 학생회실을 모두 8.7평으로 조정한다.

학림관에 위치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상담실을 캠퍼스 바깥으로 이동시키고, 세미나실과 사무실도 마땅한 공간이 마련되는 대로 옮기게 된다. 지난 해 리모델링했던 강의실은 기본적으로 이번 공간조정에서는 제외되나, 사범대와 교육대학원의 통합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는 형식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학림관 공간조정 문제는 십여년 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예산상의 어려움과 학생들의 반대 등에 부딪혀 보류돼 왔던 것

이 이제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 3월 말 사범대 학장과 학생회장들의 면담을 통해 시작된 이번 공간조정은 서너 차례의 회의 끝에 교수, 학생 모두 공간조정에 동의함으로써 향후 설계와 시공이 가능하게 됐다.

국어교육과 김주희(국교3) 학생회장은 “처음엔 학생들의 자치공간만을 줄인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반대했지만 공간조정을 통해 생기는 공간역시 학생들의 공간이므로 찬성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오는 2009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인적자원원 평가인증제에 의해 학림관 공간의 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이 인증제는 평가를 통해 인성과 비인성으로 나누게 되는데 인성을 받지 못하면 정부의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범대로서의 존립기반을 잃게 된다.

이 평가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제작실, 수업행동분석실 등 여러 가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어 이번 공간조정에 모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혜숙(국어교육) 사범대 학장은 “사범대의 발전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노력했다”며 “학교의 충분한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림관 공간조정은 다음주 중 시공업체를 선정해 다음 달 초에는 기본 도면을 만들 예정이며,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교수연구도서 구입제도’ 시행

중앙도서관(관장=석원경·화학)에서 수월한 연구도서 구입을 위해 ‘교수 연구도서 구입제도’를 시행한다.

교수 연구도서 구입제도는 교수가 필요한 책을 중앙도서관에 신청한 후 받아 보았던 종전과는 달리, 교수가 직접 필요한 책을 구입해 구입내역이 기록된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후에 입금처리되는 방식이다.

구입금액은 인문·사회분야는 1회당 50만원, 자연분야는 1회당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중앙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필요한 연구도서를 한층 빠르게 구할 수 있게 돼 교수들의 연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다시 시작합시다” ...

지난 7일 상록원 3층에서 건학10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근속 교직원 표창, 공로상, 동국 학술상,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 자랑스러운 동국인상이 수여 되었다.

(동) gfd1226@dongguk.edu

**동국로에서.**

**번갯불에 구워먹은 콩**

공과대 2학년 공순이는 지난주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다. 지난달부터 이뤄진 원흥관 개선 공사 소음 때문에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졸업 예정자 대상 설문지를 대신 작성하고, 전공 수업시간에는 공학인증 학생평가를 대비한 교육을 받았다. 실험 수업에서는 실험 대신 단체로 실험실 청소를 했다. 공순이의 상황은 실제로 지난 주 우리학교 공대생들이 겪었던 일이다.

이제는 어제부터 3일간 이뤄지는 공학인증 평가실사단 방문에 대한 준비가 급박하게 이뤄지는 과정에 있다. 공과대의 한 교수는 “자료 관리를 대신 작성하고, 전공 수업시간에는 공학인증 학생평가를 대비한 교육을 받았다. 실험 수업에서는 실험 대신 단체로 실험실 청소를 했다. 공순이의 상황은 실제로 지난 주 우리학교 공대생들이 겪었던 일이다.”

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일부 학과에서는 그동안 학생 지도 상담과 학습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주에서야 평가를 의식해 학생들에게 개인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게 하고 상담에 대한 당부도 했다.

공학인증제도는 공학관련 학부에 이뤄지는 대학평가로,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설립된 인증제도이다. 우리 학교는 2001년 첫 시행에서 공학인증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삼성전자 등 기업에서 공학인증을 받은 지원자에게 취업 가산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자 대학사회에서 공학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인증을 신청한 대학이 크게 늘어 평가가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학인증제의 선봉이었던 우리 학교가 부실한 준비 상황으로 경쟁에 뒤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준비는 비단 학교와 학과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전병훈(전기공학) 교수는 “평소 학생들에게 지도 상담을 권유하지만 막상 연구실을 찾는 학생이 적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생들의 노력도 공학인증의 충실도에 꼭 필요한 요소다.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마련된 공학인증제도가 단지 인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주객전도의 위험에 놓여 있다. 학교나 학과, 학생들은 평가단이 방문한다고 해서 ‘벼락치기’로 준비하는 것보다 평소부터 꾸준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이송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건강검사 공고**

대학 기간동안의 개인의 건강관리 및 인사 지원 시 기업들이 실시하는 건강검진 및 공무원채용시험 준비를 위하여 건강검사를 합니다. 검진항목은 일반기업체 및 공무원 입사 시 실시하는 신체검사 항목입니다.

- 대상인원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신입생 포함)
- 비 용 : 총비용 28,000원이며, 본인부담금 10,000원. 나머지는 보건소 부담 (생활조합원은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생활조합에서 추후 환불)
- 검사기간 : 5월 21일(월) ~ 5월 23일(수), 3일간 09:30 ~ 16:00 까지(점심시간 12:00 ~ 13:00)
- 검사예약 : 5월20일, 오후5시까지(홈페이지 공지사항 재학생건강검사항목에서 '신청하기'로 예약신청하거나, 보건소 방문 신청)
  - \* 검사예약을 할 경우에만 검사가능
  - \* 채용신체검사서 -검사후 3개월 이내에 가정의학과 진료 후 발행 가능
- 장 소 : 본교 보건소 (본관2층)
- 검진항목 : - 간염검사(항원항체검사), 신장기능검사 - 간기능검사, 소변검사(당, 단백, 질질) - 빈혈검사, 고지혈증(총콜레스테롤, 고밀도콜레스테롤) - 혈압, 흉부엑스레이, 종성시력, 맥박, 당뇨 등.
- 검사기관 : 동국대학교 일산 불교(한방)병원
- 문의사항 : 보건소 2260-3443

**보 건 소**  
총학생회 / 대학원총학생회

**금연! 나도 한다면 한다!**

본 보건소는 중구 보건소의 “이동금연클리닉” 사업과 관련하여 양 기관 상호협력 하에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 대 상 : 금연을 희망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선착순30명)
- 참가신청 : 학교보건소(본관2층) 방문후 [참여동의서] 작성
- 일 시
  - 가. 5월 16일부터 6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오후 5시 사이 편리한 시간)
  - 나. 5월 16일 오후 3시 금연강의 및 필히 참석 요망 (정보문화관 Q동 302호)
- 내 용
  - 가. 중구 보건소에서 금연상담사 파견, 상담
  - 나. 행동요법과 금연보조제 지급
  - 다. 영양사 상담 및 금연상담사가 금연에 대한 조언
  - 라. 6주 과정 성공자에게 6개월 추후 관리
- 문의처 : 보건소 (교내전화 : 3443)

**보 건 소**

**졸업요건 영어PASS제 모의토익(5월26일) 시행**

영어PASS제는 졸업요건으로서, 해당 학생들은 대학/학과의 지정된 영어 점수를 졸업 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국제화추진단 외국어교육센터에서는 정규시험(TOEIC, TOEFL, TEPS)이외의 패스 취득 기회 확대를 위해서 PASS제 모의 토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접수 : 5. 21 (월) ~ 5. 23(수) 24:00까지 (인터넷접수)
- 입금 : 5. 21 (월) ~ 5. 23(수) 24:00까지
- 접수증 출력기간 : 5. 25(금) ~ 5. 26(토)
- 취소 및 응시료 환불할 수 없습니다.
- 방법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재학생서비스- 외국어PASS제- 영어패스시험 신청- 응시료 입금 - 접수증 출력
- 시험 : 2007. 5. 26(토) 10:00~12:30 해화관 2층 강의실
- 대상 : 영어PASS제 미취득자
- 응시료 : 5,000원
- 입금마감일 : 2007. 5. 23 (수) 24:00까지 (미입금시 취소)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7-481766 (예금주 : 동국대학교 외국어센터)
- 주의사항 : 해당마감일까지 반드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시 본인이름 표기 : 예, 홍길동 2025123)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접수증, 연필(샤프)
- 문의 : 국제화추진단 외국어교육센터 (해화관 1층, 2260-3468, 3470)
- 시험 주의사항
  - 가. 9시 30분까지 입실하시 바랍니다. 10:00 이후는 절대 입실 불가.
  - 나. 신분증,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입실할 수 없습니다.
  - 다.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국제화추진단 외국어교육센터**

**제4기 생협 생활문화유적답사**

- 생활문화유적답사 실시
  - 가. 생활문화사업의 일환으로 교직원과 학생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기획하고자 함.
  - 나. 실크로드 불교문화유적답사를 통해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각 구성원간 공동체적 회복과 유대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답사 기간 : 2007. 6. 23(토) ~ 7. 1(일) / 7박 9일간
- 답사 장소 : 중국(은화, 우루무치, 투루판 일대)
- 신청 접수기간 : 5. 15(화) ~ 5. 18(금), 18:00시까지
- 면접 실시 : 5. 21(월), 22(화)
  - 면접장소 : 생활사무국(해화관1층)
  - \* 면접실사 시간 : 14:00 ~ 16:00(추후 변경 할 수 있음)
- 참가자 발표 : 5. 23(수) / 홈페이지 공고, 유선통보
- 참가비 : 전액무료
- 참가 자격 : 생협 조합원에 한하여 참가자격을 부여함.
- 참가 접수 : 생활홈페이지(http://dgucop.dongguk.ac.kr), 동국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생활사무국(해화관1층) 또는 이메일(3012@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사 사전모임 : 추후 개별 통보
- 문의전화 : 02-2260-8948 / 담당자 : 이준영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연계전공 · 인접학문간의 실용적 만남

##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적합 ... 학생들의 관심유도 필요

우리학교의 연계전공 제도는 지난 2000년에 도입되었으며 △전자상거래 △디자인공학 △커뮤니케이션관리과정 △전산영어학 △문화정보경영과정 △소비자학 △문화학 △문화공학이 개설되어 있다.

### 문화학, 문화공학 신설

이번 학기 시작된 문화학, 문화공학과 문화정보경영의 경우 2005년부터 대학 수도권 특성화 지원 사업 인문학 분야에 선정되어 국고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문화학 및 문화공학 연계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현장 체험 교육에서는 장극 '청' 과, 다큐멘터리 '우리학교'를 관람했다. 또한 이번 달 안에 조형디자인 전문가 초청 '빛과 도시 이야기' 특강, 아프리카문화원 방문, 부천 게임단지 방문, 인동 역사문화현장 답사가 예정되어 있다.

문화정보경영을 연계전공하고 있는 '문화정보경영개론' 과 '문화기획의 이론과 실습' 강좌의 수강생들은 연극 '염소 혹은 실비아는 누구인가', 뮤지컬 '우모자', '바비킴' 콘서트를 관람하고 극작가, 기획자, 연출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문화기획의 이론과 실습 강좌를 담당한 도승연 외래교수는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고 상당히 밀도 높은 질문이 많았다"며 "앞으로 출판, 전시, 테마파크와 관련하여도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겨울방학에는 문화학, 문화공학, 문화정보경영을 이수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20~30명가량 선발해 전문특강, 토론, 역사 유적지 및 문화현장 탐방을 하는 해외 연수를 기획하고 있다.

문화공학의 경우 멀티미디어 실습실, 문화영상자료실, 디지털영상편집실을 이용하고 있어 실습에 필요한 시설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연계전공들이 해당 몇몇 학과에서 기존에 개설중인 전공과목으로 운영되는데 반해, 문화관련 세 전공은 문화학술원에서 자체 개발한 강좌가 커리큘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있던 전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던 연계전공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율

현재 연계전공을 이수중인 재학생은 △전자상거래=8명 △디자인공학=14명 △커뮤니케이션 관리과정=9명 △전산영어학=0명 △문화정보경영과정=46명 △소비자학=3명 △문화학=26

명 △문화공학=18명이다. 또한 지금까지 연계전공을 이수한 졸업생은 △디자인공학=4명 △문화정보경영과정=7명 △소비자학=1명 △전자상거래=6명 △커뮤니케이션관리과정=12명 등 총 30명으로 참여가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다. △2003학년도 전기=5명 △2004학년도 전기=4명 △2004학년도 후기=1명 △2005학년도 전기=9명 △2005학년도 후기=2명 △2006학년도 전기=9명으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없애기 위해 지난 해 9월 지도교수 월 10만원 수당과 인문계열 학생 당 1만원, 이공계열 학생 당 2만원의 실험 실습비를 지원하는 대신, 1년 동안 연계전공 재학인원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퇴출시킨다는 폐지 기준을 마련했다.

### 이수기준 완화 필요

신청 및 허가, 학점인정, 이수포기, 학위인정에 관한 연계전공과 복수전공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연계전공의 활성화 방안은 복수전공의 활성화 방안과 유사하다. 현재는 복수(연계)전공자들은 주전공의 전공필수과목 및 복수(연계)전공의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마련해 두었다.

복수전공과 연계전공은 총 36학점의 이수학점 중 50% 이상 전문 교육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구분 없이 이수학점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전공을 제외한 복수전공과 연계전공의 졸업논문(시행, 실기 포함)을 면제시키는 방안도 있다.

연계전공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복수전공과 함께 학교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금은 둘을 하나로 묶어 놓은 형태이지만 각각 구분해서 신청 받고 표현을 독자적으로 한다면 연계전공에 대해 복수전공에 준하는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교수 확보, 적극적인 홍보 등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하나의 학과나 전공 단위가 반영하지 못하는 사회적 수요를 예측해서 그에 맞는 연계전공 강좌를 개설해야 한다. 그 후에는 이수 기준을 완화시키고 내용을 단순화하는 운영상의 논의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복수전공자

나 연계전공자도 주전공자와 동일하게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취득 전공의 학점이 줄어드는 것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활성화 시키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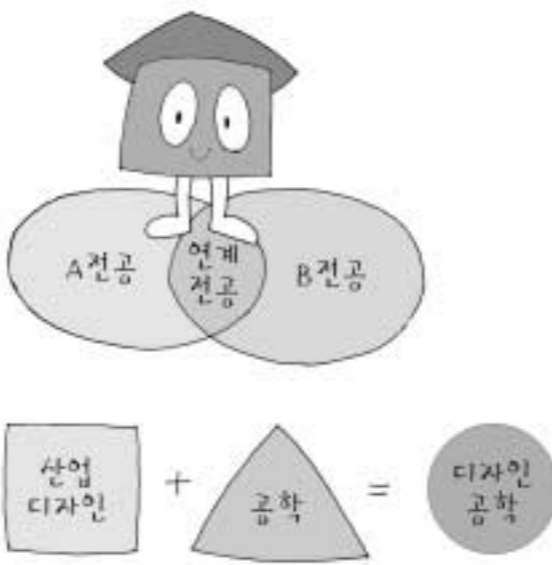
### 사회의 요구에 부응

연계전공은 기존영역의 연구, 개발의 여지가 줄어들고 학문적 깊이나 정체성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용적인 학문을 배우고 인재상을 길러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디자인공학 조암(산업시스템 공학)위원장은 "디자인공학은 현대의 디자인의 늘어난 컴퓨터 사용과 공학적인 접근 방법의 필요성에 발맞춰 인간공학을 기본으로 했다"고 말했다.

연계전공에 비해 복수전공을 학생들이 많이 이수하고 있는데 해당 인접학문에 대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전체 학생 수에 비해 적은 수요이지만 다양한 학문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는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자신의 졸업학점 중 주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유선택과목으로 채우지 복수전공 혹은 연계전공을 택하지는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업체에서 인정하고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 복수전공과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 대학생과 건강 ⑤ 성형수술

### 현대인의 행복의학이라 불리는 성형수술 숙련된 전문의에게 충분한 상담 후 결정을



20세기 이후 현대 의학의 눈부신 발전과 꾸준한 활약은 노령화 사회를 걱정할 정도로 인간의 평균 수명을 연장시켰고, 이전 양에서 질의 건강을, 즉 웰빙 인생을 추구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성(혈관종, 지방종) 및 악성종양(피부암)에 대한 수술, 액취증(암내) 수술 등을 들 수 있겠고, 수술 현미경을 이용하여 절단된 손가락을 재 접합시키는 미세 수술, 유방암 제거 후 새 유방을 만들어 주는 수술도 여기에 속한다.

미용 수술은 한정된 지면에 자세히 열거할 수 없지만 우선 흔히 알고 있는 흉터나 점 제거수술, 쌍꺼풀 수술, 코 높이는 수술, 주름살 제거수술부터 시작하여 사각턱, 무턱 교정, 유방 확대 및 축소, 지방 흡입, 모발이식, 보톡스 주사 등등 수없이 많은 아이템들이 시술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분야가 개발되어 등장하리라 예상된다.

성형수술을 소비자(환자나 환자보호자)입장에서 고려할 점은 대형매장 같은 데서 의류나 전자제품 등을 신중하게 고를 때와 마찬가지로 숙련된 공인전문(대한성형외과학회)에 등록된 대학교수나 개업의를 찾아 수술 전 평가와 수술 후 관리 등을 충분히 상담하고 차분히 검토하여 수술에 임해야 하겠다.



조 상 현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  
성형외과 교수

###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공모전 당선작 11개 발표

교수학습개발센터(센터장=이종권·수학교육)이 주최한 스승의 날 기념 제5회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공모전의 11개 당선작이 오늘(14일) 발표된다. 이번 공모전은 사제의 정을 독톡히 하고 기억에 남는 강의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널리 알려 면학 분위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열렸다. 당선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20만원씩 총 220만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당선된 명강의 교수에게는 각각 30만원이 상패와 함께 주어진다. 시상식은 이날 말에 열릴 예정이다.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당 선 자	강 의 명	강 의 교 수
함형은(선학4)	불교교리사	전호련(불교학)
김해정(국교3)	소설과 영화의 대화	김해련(국어국문학)
김영은(철학2)	철학의 근본 문제	정성호(철학)
박진영(통계4)	프로그래밍 및 실습1	이관제(통계학)
서보원(법학3)	형법총론	김태명(법학)
안준영(정의3)	주변국정치론	천경태(정치외교학)
황현태(정보관리4)	정보전략	황경태(경영정보학)
황현철(산시공4)	제품개발 및 정보관리	박준영(산업시스템공학)
송영근(정보4)	디지털 통신 및 실습	임민정(정보통신공학)
김승연(영교3)	한국대의 관계사	윤선태(역사교육)
배은경(법공4)	컴퓨터 게임 제작 실습	조경은(게임멀티미디어공학)

## 우리학교 논술 길라잡이 5. 나는 논술고사 이렇게 준비했다(자연계 신입생)

- 글 실는 순서
1. 동국대 통합논술, 이렇게 출제하고 평가한다(윤재용 교수)
  2. 인문계 모의 논술고사 해설 및 답안 분석(윤재용 교수)
  3. 자연계 모의 논술고사 해설 및 답안 분석(성정석 교수)
  4. 나는 논술고사 이렇게 준비했다(인문계 신입생)
  5. 나는 논술고사 이렇게 준비했다(자연계 신입생)
  6. 논술고사 이렇게 준비하세요(인천대건고 논리학 교사 주영기)

이제 대학생이 되었다는 설렘과 함께 정말 좋은 선택들과 마음이 잘 맞는 동기들을 만나게 되어서 즐겁게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대학생활을 마음껏

만끽함과 동시에 대학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다가올 하루가 더욱 값지게 느껴진다.

내가 우리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치른 시험은 수시 2학기 논술고사이다. 나는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글을 접해보기 위한 노력이 인문계열 학생보다 적었다. '글쓰기' 하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자신이 없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계열 학생들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예비 동국인을 꿈꾸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내가

논술을 준비했던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할까 한다. 참고로 나만의 논술고사 준비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나는 대입 논술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논술학원을 다니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밝혀두고 글을 시작하겠다.

창의적인 사고와 문장력을 구사하기 위한 교양인의 필수적인 조건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이다. 독서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넓은 사고와 표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장기간을 두고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입시 준비로 바쁜 수험생에게 독서를 권장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내가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신문읽기다. 책과 신문 모두 인쇄매체의 한 종류이고, 지식을 전달해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책은 출판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 시대를 반영한 정지된 글이 된다. 이에 반해 신문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발 빠른 소식을 전하고 하루 전에 있었던 사건, 심지어 1분전에 일어난 사건, 사고들도 접할 수 있는 운동성

이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문의 장점 때문에 신문을 읽게 되면 자연스레 사회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뿐더러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논술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신문의 사실을 주의 깊게 읽어라' 라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의 바탕이 되는 사건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또, 사실뿐만 아니라 신문에 실린 기사 또한 객관적이면서 동시에 기자의 주관에 담긴 글이기도 하다. 기사 하나도 일종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계열별로 필요한 주제를 찾아 발췌해서 읽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하루에 10분정도 투자를 하여 그 시간들이 한 달이 되고 일 년이 되어 쌓이게 되면 그 정보의 양은 정말 방대해진다.

또 신문을 읽으면 어휘력이 늘게 된다. 같은 의미이지만 글의 성격에 따라 가려 써야 할 단어의 사용법도 알 수 있고, 한자에 친근하지 못한 학생들에

게 조금이나마 한자가 익숙하도록 만들어 준다. 자신은 신문을 읽으면서 의식하지 못하지만, 신문기사 내에서도 자주 쓰이는 단어 같은 것을 기억해서 나중에 글을 쓸 때 그 단어를 쓰게 된다. 나는 신문을 읽으면서 어휘력 부분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얻었다.

내가 논술 준비를 하면서 신문에서만 도움을 얻은 건 아니다. 눈으로 읽는다고 해서 절대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기울인 노력은, 직접 주제에 맞추어 글을 써보는 것이다. 나는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글쓰기 방법을 택하였다. 내가 사용한 방법은 시간에 쫓기는 고 3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큰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관한 나의 생각과 제시문의 생각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옹호하기도 하면서 글을 한 편 쓰고 여러 사람에게 내 글을 평가 받았다. 보통 논술문을 쓸 때 논술문 하나에 첨삭을 한 번 받는 경우가 많다. 나는 글을 한 번 쓰고 첨삭을

적어도 6번을 받았다. 개인마다 생각하는 것과 관심 있는 분야와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6번의 첨삭에서 내 글을 평가하는 관점은 모두 달랐다. 내용면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띄어쓰기와 맞춤법, 어휘면을 지적해 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대안과 정반대의 대안에 관한 의견,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안을 내놓는 경우도 있었다. 오히려 글은 한번 썼지만, 여러 번의 첨삭으로 인해 그 첨삭의 수만큼 글은 쓴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과나무에 맛있는 사과가 열리기 위해서는 사과나무를 키우고 있는 농부의 노력과 땀이 필요하다. 과정은 힘들지만 사과가 열리고 그것을 수확했을 때의 농부의 마음처럼 1년 후에 대학교정을 거닐며 친구들과 웃고 있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끝까지 노력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소 영  
이과대 수학1





# 학생과 상담센터, 서로에게 한발짝 다가서다

## 접근성 높이고 전문인력 확보해 활성화에 힘써야

버지니아공대 총격사건을 계기로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취업에 대한 각종 스트레스로 우울증, 강박증, 정서불안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학교 내 학생상담센터는 대학생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느낄 때 비교적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이다. 때문에 학내 학생상담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찾은 학생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3배가량 증가했다. 이곳에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심리적인 문제와 진로·적성탐색을 위한 심리검사를 해주고 있는데, 검사를 받은 학생은 3월부터 지금까지 500명 상당이다. 학생상담센터는 찾은 학생들이 늘어남 것에 대해 전진상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학내 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어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설기관에서 심리검사를 받으려면 40~5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 반면 학생상담센터에서는 무료로 검사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는 학생들이 많다.

### 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

우리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심리검사 △개인상담 △집단상담 △진로지도 △특강 및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임 상담원 2명이 학생들의 상담업무를 맡고 있고 집단상담의 경우 외부강사를 초빙해 상담이 진행된다. 개인상담은 정서문제, 진로의 선택 및 미래 설계, 학과의 적응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상담원과의 대화를 통해 실질적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더불어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전문가 초청 강연도 실시하고 있다. 매년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진행되는데 오는 30일에는 꿈과 희망을 테마로 가수 신해철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MBTI 심리검사

이는 상담활동과 함께 대화문화와 관련한 전문가를 초대해 학생들이 참여하는 바깥쪽의 대화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이다.

### "상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서강대 학생생활상담센터의 경우 집단상담 중의 하나인 사이코드라마를 한 학기에 1번씩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매년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

여할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이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세계를 설정해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으로 마음의 아픔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준다. 우리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도 사이코드라마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이코드라마를 진행해 줄 전문가를 섭외하는 일이 쉽지 않아 지난 2005년 구성에 강사의 '올바른 대학생의 성문화' 특강 때 사이코드라마를 진행한 것에 그쳤다.

상담센터를 찾는 학생들이 늘어도 상담을 맡아줄 상담원이 없으면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효과가 없다. 현재 우리학교 학생상담센터에는 2명의 상담원이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2명의 상담원으로 전체 재학생 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학생상담센터에서 개인상담을 받은 모 학생은 "상담을 받기위해 3주를 기다려야 했다"며 "상담원 인력을 보충해 많은 학생들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위해 공간, 인력 등의 지원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서강대 학생생활 상담 연구소에는 상담교수 3명, 전임상담원 1명, 시간제상담원 5명, 레지던트상담원, 인턴상담원 등 대학에 비해 비교적 많은 상담원이 활동하고 있다. 때문에 수시로 이루어지는 심리검사에 대한 해석 상담을 제외하고도 한 달에 40~50명의 학생 상담이 이루어진다.

또한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 전문 상담자 양성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석사과정을 마치고 얼마간의 경력을 쌓은 후 이곳에서 수련과정을 거치게 된다. 수련과정을 모두 거친 상담원은 타 학교 상담원으로 활동하거나 상담전문기관의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상담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해 학생들에게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추진해야

일반적인 상담 이상의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학생상담센터에서 학내 보건진료소, 병원까지 연계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학교 상담센터에서도 상담 후 전문적 정신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보건진료소에 의뢰하고 있다. 서울대에서는 대학생활문화원과 보건진료소 신경정신과에서 학생상담 서비스

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생활문화원에서 상담이 이루어진 후 상태의 심각성이 판단되면 보건진료소 신경정신과와 연결해 주고 있다. 서울대 보건진료소에는 신경정신과 교수가 상주해 학생들의 상담을 맡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우울증을 경험한 학생과 자살충동을 느낀 학생 수가 증가했다는 결과와, 버지니아 공대 총기사건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져 대학본부 차원에서 정신건강위원회를 구성해 24시간 전화상담기관을 마련하는 등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리학교 상담센터의 경우 아직 규모와 운영 상태 등에서 초기 상태라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를 극복하고 안정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담의 역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상담을 자신의 정신건강과 진로탐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학교 측의 지원과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많은 학생들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미혜 기자

lmonaral@dongguk.edu

### 대학생 정신건강의 중요성

##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이 있다면 '생명'이다. 생명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존중받아야 한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생명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200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12,047명(인구 10만명당 26.1명)이 자살하여 OECD국가 중 가장 많이 자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루에 33명이 자살하고, 사망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도 포함한 20대의 자살자 수는 1,361명(인구 10만명당 17.7명)으로 사망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1위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가장 왕성하게 미래를 위해 자신의 꿈을 펼쳐가야 할 젊은 이들이 이렇게 많이 자살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자살 원인의 복잡성에 비추어보면 자살의 이유를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싶다.

첫째, 생명과 죽음의 관점이다. 생명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천부인권(天賦人權)의 개념을 지닌다. 다른 사람의 생명에 폭력을 가해선 안 되듯이 나의 생명에도 치명적인 폭력을 가해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끊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 내 생명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함께 해왔던 가족, 친구, 이웃들의 생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살의 자살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과 친구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또한 인간은 죽음 앞에서 난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진시황제의 불로초도 그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죽음으로 인해 인간은 단 일회적인 반복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죽음으로 인한 인간 실존의 비 반복성에 대한 철저

한 인식은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더욱 소중하게 하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깊게 한다.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것이고 가장 존엄하지 못하게 죽게 하는 것이다. 어떠한 역경에도 불굴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 생명의 존엄을 더욱 크게 느낀다.

둘째, 정신 건강에 대한 관점이다. 우리는 신체적으로 아프지 않다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건강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특별한 정신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학생활은 학업에 대한 부담 뿐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고, 배우자를 찾는 등 자신의 정체감을 찾는 데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이다. 특히 현재의 자기와 기대하는 바의 자기와의 괴리감을 지나치게 크게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욕구불만과 함께 심한 정신적인 혼란을 겪게 된다. 이 불만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분노를 폭발시킬 수 있다. 그 분노가 자신에게 쏟아지면 자신을 비하하고, 부정하고, 규탄한다. 그것이 지나치면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우울감에 휩싸이고 삶의 의미부여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끊고 싶은 충동까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정신건강을 소홀히 여기면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정신 건강이 높은 사람은 자기 존중감이 높고 문제해결력이 뛰어나 일상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 한편 자신이 힘들 때 자신을 도울 만한 친구나 교수, 상담소 등 사회적 자원을 잘 활용할 줄 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삶의 지혜이다.



하 상 훈  
교육학 박사  
서울생명역사학원장

## 영어Pass제 대체강좌 공고

개설취지 및 목적	1. 졸업인증 미 취득자에 대해 보충학습 기회 제공 2. 강좌는 졸업인증 Pass제에 취지에 합당하게 구성되며 출결 및 성적이 엄격히 관리됨.
강좌구성	강좌명 2007년 상반기 졸업 Pass제 대체강좌 수업기간 2007년 7월 2일(월)~2007년 7월 11일(수) 총 8일 강의시간 9:00~4:00 (12:00~1:00는 점심시간) 총 48시간 강의내용 TOEIC LC+RC/청취 강좌/ Reading Voca / 비즈니스 영어 강의실 추후공고
수강자격 및 조건	1. 2007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영어Pass제 미통과자 및 수료자 2. 영어공인인증시험(TOEIC, TOEFL, TEPS) 및 외국어 교육센터 Pass제 모의시험 시험 2회 이상 응시 경험 있는 자
Pass 기준	총점산출 출석률 60% + 성적 40% Pass 기준 1. 총점70점 이상일 경우 Pass 2. 2회 이상 결석 혹은 시험 미응시는 점수와 관계없이 제적 3. Pass의 경우 영어 졸업인증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처리
수강신청	접수일자 6월 22일(금) ~ 6월 28일(목) 접수장소 혜화관 1층 English Clinic 준비물 신청서, 사진 2장, 신분증, 시험응시증빙서류 신청방법 1. 수강신청서 작성, 과거 영어시험 증빙자료와 같이 접수 후 2. 온라인 입금 : 신한은행 / 계좌번호 140-006-754830 / 예금주 : 동국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
문의사항	수강료 200,000원 (교재 별도) 2260-3468, 3470

## 국제화추진단 외국어교육센터

### 책과 저자에 대한 소중한 만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칼의노래>, <남한산성>의 저자 김훈

중앙도서관에서는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나 저자의 사상과 텍스트에 담긴 의미에 대해 대화를 나눔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혀 교양역량을 강화하는 물론 독서인식을 고취하고 책읽기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강연회를 준비하였습니다.

1. 행사명 : 제1회 <저자와의 대화>
2. 일 시 : 2007. 5. 18(금) 오후 1:00~2:30
3. 장 소 : 중앙도서관 A/V실(2층)
4. 강연자 : <칼의노래>, <남한산성>의 저자 김훈
5. 내 용 : 강연 및 사인회
6. 인 원 : 70명
7. 참가신청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dongguk.edu/>) 또는서관장님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결원시에만 현장접수 합니다.
8. 주 최 : 중앙도서관, 학교재 공동추진
9. 기 타

\* <저자에게 묻고 싶은 한마디>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질문이 채택된 학생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또한 정시에 참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해 책과 상품권을 나눠 드립니다.  
\* 이메일 주소는 [choiw@dongguk.edu](mailto:choiw@dongguk.edu)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8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도서관

## 동국대 출판부 발간도서안내

Http://home.dongguk.ac.kr/~book  
Tel. 02)2260-3483~4 Fax. 02)2268-7851

1. **중요 약용재의 특성과 재배 신기술**  
- 천마 저령 복령 꽃송이버섯 -  
이민용 지음  
2007 / 4x6배판 / 298원 / 22,000원  
ISBN 978-89-7801-189-1 93630



최근 의학이나 한의학 또는 약학계와 균학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생물이 흔히 버섯이라고 알려졌었다. 더욱이 천연물을 이용한 대체의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의 활용성이 날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건강 및 장수에 큰 영향을 주는 천연물의 종류를 찾고, 이러한 종류를 어떻게 단기간 내에 확보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서에서는 현재 국내 한의학 및 약학계에서 전통적으로 약용이나 식용 부재료로 널리 사용해온 천마, 저령, 복령, 꽃송이버섯 등의 이용 실태를 다루고 또한 국내 생산이 제한적이거나, 생산이 안 되는 이들 약용재의 생산을 위한 새로운 재배방법을 소개하였다. 특히, 천마의 번식을 유성번식체계로 할 때의 장점과 생산성 향상을 다루었고,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는 저령들이기에 인공배양방법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연구를 통해 새로운 재배기술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저자들은 균자원이 풍부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천마, 저령, 복령, 꽃송이버섯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해 왔고, 이들에 관한 연구 내용 정보를 많이 확보하였으며, 특별히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많이 수록하였다.

여기서 다른 내용은 활용가능성이 높아 연구자들에게 추후 연구를 계속하는 데 필요한 필독서라고 보며, 재배에 종사하는 재배자들에게는 새로운 기술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활용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했기 때문에 생산과정에서 응용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 소개한 내용은 학술적 가치로서 전문 연구자들에게 필요할 때까지 연구된 내용과 학술 정보를 망라함은 물론이고, 일반 농가에서 재배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재배에 관한 실무적 경험과 최근 정보를 접할 수 있게 수록하였으므로 귀중한 재배 정보가 되리라고 본다. 이외에도 균학 연구 분야 학계에 관계되는 학문 분야의 대학원교육과정에 필요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교육 및 연구의 활용자료로 충분히 이용가능하다고 본다.

2. **한국사경 연구**  
장홍식 지음  
4x6배판 / 345쪽 / 25,000원



고 장홍식(張弘植)교수(전 동국대박물관장·문화재청문화재위원)의 '한국사경 연구'는 불교미술의 한 분야이자 종교적 수행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사경을 주제로 한 책이다.

이 책은 국내외에 소개되어 있는 신라시대사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는 전 시기의 방대한 사경물 대상을 토로 하여 그간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것으로서 200여장이 넘는 사진 가운데는 그동안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사경들도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또한 각 사경의 현존 상태, 표지화(表紙畵), 변상도(變相圖), 체재, 경전의 내용, 발원지와 해당 시기의 시대 배경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며 아울러 발문(跋文)이나 발원문(發願文)까지도 전문(全文)을 해설·분석하고 상당수의 오자(誤字)와 오목(誤刻)을 바로 잡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단편적인 연구 성과에 머물러 있는 현재의 사경 연구를 편년(編年) 위주의 연구 체제로 끌어 올리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연문의 주옥을 받았던 특정 사경들에 대해 당시 조사자의 임정이 기술되어 있는 등 한국 사경 연구에 매진하였던 필자의 생생한 현장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책의 발간은 올해 7월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규모로 열린 예전인 한·중·일 사경전(佛經展)의 개최와 맞물려 우리 사경의 진면목을 알리고 그 문화적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값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학교 여학생 복지시설 실태점검

# 여학생수 증가에 따른 복지공간 확대해야

## 휴게실 시설 일부 건물에 제한돼 ... 공간 재편성 필요

점점 여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요즘 우리 학교의 경우 전체학생 중에서 약 42%가 여학생이다. 이처럼 여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는데 비해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학내 많은 복지시설 중에서도 단연 휴게실이 여학생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소다. 우리학교에는 학내 곳곳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지만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공동 장소에서 여학생들이 편히 쉬기는 어렵다.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잘 경우에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을 보는 시선이 더 곱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여학생들만의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학교에 있는 여학생 휴게실은 3곳으로 수요를 채우기에 부족하다. 휴게실의 위치도 계산관, 중앙도서관, 만해관이라서 경영대나 사과대 소속의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렵다. 특히 가장 큰 휴게실이 위치한 계산관은 학림관 옆에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 대부분의 여학생이 사범대학생이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여학생들이 대부분의 학과에 골고루 재학하고 있지만 휴게실은 여전히 한 쪽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

이다. 연세대는 '논지방'이라는 독립된 건물과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각 단과대학에 여학생 휴게실을 갖추고 있다. 10~20명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여러 위치에 갖춰놓아 학생들의 불편을 덜고 있다.

휴게실 시설 면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 만해관과 중앙도서관에 있는 휴게실에는 원탁테이블과 의자만 있다. "휴게실마다 수면실을 갖춰놓고 있다"는 경희대 여학생과 김정은 연구조교의 말과 비교하면 우리학교의 복지 수준이 뒤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단순히 수면실이 아니라 온돌방에서 이불을 덮고 바닥에서 잘 수 있는 곳이나 2층 침대를 이용 할 수 있는 곳 등 다양한 종류의 수면실을 마련해 놓았다. 이에 대해 여학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교장은 "침대의 부피가 상당히 큰데 가뜰이나 부족한 공간에 침대를 들여놓기는 힘들다"고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학교에서 직접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계산관 여학생 휴게실에는 1층과 2층에 다양한 시설이 비치 돼 있다. 1층에는 비디오 400여 편을 볼 수 있는 관람실과 책 300여권을 대여할 수 있는 도서실이 있고

2층에는 화장을 할 수 있는 퍼프룸(Puff room)과 편히 쉴 수 있는 소파가 있다. 비교적 넓은 공간이지만 유용하게 쓸 수 없다는 점이 걸린다. 운영교장은 "앞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해 공간 활용의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간막이를 제거해 공간의 넓이를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세미나실을 하나 만들어 평소에는 휴게실로 쓰

고 필요할 때마다 세미나 용도로 사용하고 한다.

매년 여학생들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고 경희대의 경우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이 전체의 51%로 남학생보다 더 많다. 대학의 여학생 구성원인 여학생을 위해 조그마한 휴게실이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장소가 곳곳에 확보돼야 할 것이다.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 우리학교 여학생 복지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

## 실속있는 장기적 프로그램은 어디에?

남자와 여자, '남'이라는 글자와 '여'라는 글자의 차이부터 시작해 서로 다른 점이 많다. 특히 대학생들의 취업에 있어서 남학생들은 목표를 크게 잡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자신의 실력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여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학교는 여학생들을 돕기 위해 취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해 여학생들의 취업을 상승을 꾀하고 있다. 정규수업으로 '여성의 진로탐색과 커리어개발', '여성리더와의 대화', '여대생의 자기개발과 진로탐색'을 진행한다. 학생들의 반응을 들어보고 다음번에 참고하기 위해 '여

성리더와의 대화'라는 다음카페에서 강의후기를 받고 있다. 강의후기를 작성해와 출석이 인정되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다.

반면에 지난 4월에 열린 전문가 초빙 특강에는 기대했던 인원의 절반정도가 참여했다. 홍보가 다소 부족했다는 점과 강사의 인지도가 떨어졌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단기강좌도 진행하는데 그 내용으로 이미지 메이킹, 메이크업 등이 있다. '메이크업' 강좌의 경우 요즘 학생들이 화장을 잘하는 편이라 이제는 진부한 내용으로 전락해 앞으로 새롭게 바꾸는 것을 고려 중이다.

많은 대학 중에서도 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는 연세대를 꼽을 수 있다.

'연세여성네트워크'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취업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한다.

더불어 한달에 한번씩 여학생들의 메일로 연세여성뉴스레터를 보낸다. 이 뉴스레터에는 한 달간 열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올해로 3기째 맞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연세대 출신으로 전문분야의 여성동문들이 멘토가 된다. 멘토 1명당 멘티 3명이 연결되어 멘토 직장 탐방 등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한다. 2005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동문들과 학생들의 참여가 모두 활발하다.

그런가 하면 우리학교에는 취미교양 프로그램이 많다.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늘(14일)부터 22일까지

연등과 축원문 공모행사를 개최한다. 이번에는 새롭게 불교문화관련 십자수 공모전도 함께 진행한다. 추석 즈음에는 송편배우기 행사를 통해 전통문화를 공부할 뿐만 아니라 증구에 거주하는 불우한 어르신들께 만든 송편을 가져다주는 봉사활동도 겸한다.

여학생커리어개발센터의 홈페이지도 조만간 개설될 예정이어서 여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제부터는 취업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안해내어 여학생들의 복지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 여학생 위한 총여학생회 무엇을 하고있나?

편하게 찾아가 고민을 털어 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옆집 언니. 여대생들의 옆집 언니 역할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을까.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학생기구, 바로 총여학생회이다. 총여학생회는 여학생들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학생자치기구로서 올해 제20대 총여학생회(회장=변승희·경영4, 이하=총여)가 활동 중이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3년동안 학생들의 관심, 선거 참여율 저조 등으로 총여학생회가 건설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제38대 총학생회 산하의 여학생위원회가 활동했지만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않아 오랫동안 여학생 복지 및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총여학생회 활동에 대해 박예슬(영여통번역2)양은 "총여학생회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활동에 대해 체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많은 학생들이 총여의 활동에 대해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총여가 꾸러지면서 그동안 부재했던 역할이 하나 들쭉 집행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총여 건설 후 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만해관 여학생 휴게실에 침대 설치를 추진해 성과를 이뤄냈다. 총여가 건설되고 4개월이 지났지만 만해관 휴게실의 시설 개선 외에 실질적으로 총여가 기획한 계획과 공략 중 기획 단계에 머물고 있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하다.

총여 활동이 활성화 돼 있는 한양대의 경우, 각 단과대에 위치한 여학생

### 적극적인 홍보와 공약추진 이뤄 학생들에게 도움주는 '언니네 집' 만들어야

휴게실을 총여학생회가 도우미를 뽑아 직접 관리하고 있다. 한양대 총여학생회장 이선용(한양대 법학4) 양은 "여학생 휴게실마다 돌아가면서 격주로 카페를 만들어 '비누 만들기' 등의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며 "화장실 통신"이라는 소식지와 더불어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창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대는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 사이에서 총여 활동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경남대 총여학생회장 최민희(경남대 경영학부4)양은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보수적이라 여성의 활동이 적다"며 "외부 업체나 보건소 같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물을 나눠주고 캠페인을 벌여 활동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총여 활동에 대해 총여학생회장 변승희(경영4) 양은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성평등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그에 따른 사업을 계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화장실 내 여성용품에 대한 가격 인하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경희대와 중앙대 등의 몇몇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리공결제를 올해안에 추진해 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이번 축제 때는 여학생커리어개발센터, 직장원과 협력해 기념품을 나눠주고 연등, 축원문 공모를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여학생들의 성의식 설문조사와 성지식에 대한 팸플릿을 배부해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고 총여를 알리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여학생들 간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형성을 위해 '선배와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그룹 멘토링을 현재 계획하고 있다. 여성커리어개발센터와 협의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으로 활성화가 나갈 예정이다. 재학생들과의 소통도 총여학생회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고 총여를 알리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여학생들 간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형성을 위해 '선배와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그룹 멘토링을 현재 계획하고 있다. 여성커리어개발센터와 협의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으로 활성화가 나갈 예정이다. 재학생들과의 소통도 총여학생회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고 총여를 알리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학교 총여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추진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총여학생회를 알리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가 이뤄져 남은 8개월의 기간 동안 총여학생회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여학생회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학생 복지에 대해 힘써 여학생들의 옆집 언니 역할을 톡톡히 해주길 바란다.

이송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 제8회 대학생·교수 창업경진대회

제8회 대학생·교수 창업경진대회

진급기준    이익률 발표    연구계획서 수행    인력 계획    거점 포상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신한 창업아이템 및 우수신기술을 사업화로 연결시켜 미래 우수기업가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참가자격
  - 교수부문 : 본교 교수 및 연구원
  - 학생부문 : 본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석/박사)
- 참가분야 : 영상공화관련 분야, 기타 분야
- 신청 및 시상
  - 신청기간 : 2007년 5월 18일(금)까지
  - 발표 및 시상 : 2007년 5월 25일(금)
- 시상내용
 

대상(각 1팀)	시상 내용	비고
교수부문 대상 1팀	400만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회 부여
학생부문 대상 1팀	200만원	
우수상(1팀)	학생부문 우수상(2팀) 100만원	
총 800만원 창업지원금 및 우수팀 팀에 한하여 창업보육센터 입주기회 부여		
- 참가요령
  - 본교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작성
  - 필요시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
  - 2차 설명회 발표에 대비한 발표자료 준비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소정양식)2부
- 접수 및 문의처 :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행정지원실(총무로관 2층 201호) · 총무로의 3번출구 동국대학교 영성센터 (Tel) 2088-3736 ~ 7 (Fax) 2088-3738 (E-mail) dvc@dongguk.edu
- 특전
  - 경진대회 신청자 및 수상자 대상 창업교육 실시
  - 창업교육 12시간 이상 수료자는 사내문소상공인지원센터에 창업 특별보증 지원 (창업보증자금 2천만원, 사업장임차자금 5천만원연도)
  - 수상팀은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우선권 제공

주최 : 창업보육센터    주관 : 산학협력단 영성사업단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Dongguk Venture Incubation Center

##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주관

### 제45회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 작품모집

동국대학교에서는 민화와 미당에서 황석영 · 조경래 · 정채봉으로 이어지는 동국문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국 고교 문학회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우리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하여 제 45회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를 개최합니다. 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이 본교에 입학할 경우에는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국내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장면에 많은 문학도들이 참가하길 바랍니다.

- 응모부문 및 제출편수
  - 시 · 시조 : 2편 이상
  - 소설 : 1편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 수필 : 1편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 응모 및 심사 : 주제에 상관없이 본인의 순수 창작 작품을 우편으로 응모하면 예비 심사를 거쳐 본선 참가 대상자를 선발하여 학교로 통보합니다. 본선 참가자는 **6월 9일(토) 10시** 본교에서 열리는 백일장에서 제시된 시제에 맞춰 전국 고교 문인들과 문학 역량을 겨루게 됩니다.
- 시상 : 각 부문별로 장원 1명, 차상 1명, 차하 2명에게 상장 및 부상을 지급하며, 본선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당선자에 대한 저작권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 장학금 지급
  - 장원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할 경우에는 2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 차상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할 경우에는 1년간 등록금의 30% 면제
  - 본교 재학 중 문단에 등단하면 차하에게는 졸업시까지 소정의 장학금 지급
- 작품제출기간 : 2007년 5월 7일(월) ~ 5월 23일(수)까지 (당일 도착분에 한함, 직접접수 가능)
- 작품제출처 :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 주의사항 : 동국대 문예창작학과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응모작품(원고지나 A4용지만 허용)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mail과 Fax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공식홈페이지(http://munchang.dongguk.edu/)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과 참가신청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Tel. 문예창작학과 (02) 2260-8773

## 부처님 오신 날 기념 공모행사

- 공모내용
  - 가. 제9회 연등 및 축원문(사연) 대공모
  - 나. 불교문화관련 십자수 경연대회
- 공모기간 : 2007. 5. 14(월) - 5. 22(화)
- 접수처 : 여학생 커리어개발센터 (계산관)
- 발표 : 2007. 5. 23(수)
- 시상 : 2007. 5. 28(월)
- 세부내용
 

분야	내용	인내	비고
연등	아름답고 의미있는 창의적 연등		소재 제한 없음
축원문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원문	AA 1~2매	
십자수	불교문화관련 십자수	크기 제한 없음	
시상내역	1등 : 상금 20만원 및 상장		당선작이 없을 경우
	2등 : 상금 10만원 및 상장		인원 변동 가능
	3등 : 상금 5만원 및 상장		
- 문의 : 여학생커리어개발센터 담당 윤주영(구내8853~5)

## 여학생 커리어 개발 센터

교생실습기 - 나의 현장교육 보고서

내 인생 첫제자와의 만남



벚꽃이 피기 시작한 4월 초, 싱그러운 꽃냄새와 함께 나의 교생실습은 시작되었다. 실습을 나가기 전에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실습에 대한 부담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녀온 지 며칠이 지난 지금 뒤돌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유와 그에 대한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다. 4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경험만 가지고서, 전국의 수많은 학교 중에서 내가 실습을 나간 학교 한 곳만 경험하고서 현재 교육 현장의 모습을 담아낸다는 것이 어쩌면 성공한 일반화가 아닌가 생각되지만 조금의 정도차가 있을 뿐 교육의 한 단면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다.

나는 처음부터 실습에 임하는 자세를 교육현장에 관한 '관찰' 위주로 정하였다. 첫 번째로 요즘 중학생들의 문화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중학생은 고등학생과 달리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겁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일러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알리는 노력보다 현 한국 사회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해서 안 되는 이유만 찾아내고 있는 듯하다. 좀 더 학생들의 눈에 맞춰 접근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다. 우리 반 아이들 뿐 아니라 학교 전체적으로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일상적으로 욕을 입에 달고 있었다. 전

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학생의 입은 그렇게 거칠어져 있었다. 그들의 언어문화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정도가 너무 심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어른들의 모습을 반영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학생들은 게임에 관심이 많고 가끔씩 나에게 야동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었다. 여학생들은 한창 사춘기 때여서 그런지 외모에 관심이 많았다. 교실 거울 앞에는 항상 여자애들만 북적거렸다. 립스틱을 바르거나 파운데이션까지 한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동년배 남자애들 보다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오빠들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내가 키가 좀 큰 편이어서 그런지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가 키가 크지 않아서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아이도 있었다.

두 번째는 수업 관련 부분이다. 실제 수업은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지라 균형을 잡고 진행하는 점이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생소해하는 단어의 뜻을 그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까다로웠다. 수업은 연습을 통해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공 능력을 사전에 갖추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생들은 재밌는 선생님을 좋아하는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는다고 한

다. 학생들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이 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직 문화에 대해 지켜보았다. 세간에 널리 알려졌듯이 여교사의 수가 상당히 많았다. 아기가자한 학교의 모습을 볼 수는 있으나 학생 지도의 측면에서는 남교사들에게만 전가되는 점이 없지 않아 보였다. 교사 업무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생활 지도라고 한다. 생활지도부 소속 교사는 전부 남자 교사였고, 많은 학교 현장 또한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전체 선생님이 한 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모습은 찾기 힘들었다. 이제 교직도 전문화 바람으로 인해 부서별, 교과별 모임이 주를 이룬다고 한다. 같은 학교라고 해서 하나가 돼야 한다는 기존 학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체험기를 쓰고 있는 지금도 아이들이 보고 싶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왔어도 실습은 성공이라는 한 선생님의 말이 귓가에 울린다. 진짜 선생님이 되어서 다시 아이들과 만날 날을 기대해 본다. 뒤돌아섰을 때 아쉬움이 남는다면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기억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소중함이 계속 나의 가슴 속 깊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김현진(사범대 교육4)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학제개편과 관련해 학생의 목소리 많았으면

제1443호 동대신문은 건학 101주년을 맞이하여 학교가 내어놓은 청사진들을 알려주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신문이 발행되는 시기에 즈음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의 대부분은 개교기념행사보다는 108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과 통폐합' 일 것이다. 개교기념일 전후로 하여 폐과가 확정된 학과 소속의 단과대 앞에선 관련 행사들이 행해졌지만 해당 학과생들의 목소리를 신문을 통해서 상세히 접할 수는 없었던 대신에 학교의 구조조정 방침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교직원 분들이 교내 갈등에 대해 갖고 있는 원론적인 해결책들만 반복해서 기사화 된 점이 아쉬움을 느끼게 했다.

학교의 구조조정이 취업률 상승에 긍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기사들에 언급된 학과들은 불과 한 두개로 국한되어 반복 인용되고 있었고, 정작 폐과 방침이 내려진 학과나 소속 단과대에 대하여 학교 측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예상된 것'이며 우리 모두 감내해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학교의 변화방침이 학생들에게 알려진 것은 불과 얼마 전이다. 하지만 변화의 결과는 누구보다도 학생들이 가장 무겁게 짊어져야 함이 분명하며, 학교 운영비용에 있어서 학생들의 기여정도를 감안하더라도 학생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았다는 점을 취업률과 지원정책이라는 외부항목만으로 이해하기엔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점에 대해 학교 측의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대다수 학생들의 심정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선 학문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인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뭔가 착오하고 있는 것 같다. 학문은 현시대에 부합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발 앞서 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학문 그 자체만의 굳은 심지가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학문은 사람과 같이 다양한 얼굴들을 지니고 있다. 각자의 생김을 존중하지 않고 성형수술만을 권장했다가 후유증이라고 생긴다면, 그 후유증에까지 정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매길까봐 두려워진다.

김민수(예술대 영화영상4)

열린글터

독자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만화, 만평, 4매 분량의 글 등을 게재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ongguk.edu TEL : 2260-3491~2 FAX : 2279-1270

잊혀져 가는 학교의 주체

근래 학교가 구조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학제 개편과 원흥관 등 학교 건물들의 보수 및 신축을 들 수 있다. 모교가 좋은 방향으로, 학생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발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얼마 전에는 독문과가 폐지된다고 들었다. 독문학과뿐만이 아닌 다른 여러 학과 또한 마찬가지라고 한다. 타당한 이유, 목적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학과의 학생들을 최대한 배려를

해주면서 폐과를 진행한다면 납득이 가지만 이번 독문과 폐지에는 학과 학생, 교수, 학부보, 동문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 일방적인 폐과추진을 하고 있다. 아무런 의견표현도 못하고 자신의 과가 폐지 당한다는데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학교의 주체는 우리 학생들이 아닐까?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폐과를 진행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학교에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학생을 생각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로 학생들에 의해서 구성되고 발전되

어야 한다.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과연 학교의 발전이 올바르게 되고 있는 걸까?

트랙제도 마찬가지로 과연 누구의 의견을 듣고 유사학과를 결정하여 묶어 버린다는 건가? 각 과의 특성과 배우는 학문의 연관성은 학생들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 분명히 학생들, 각 과의 학생회의 의견 수렴이 이뤄진 후 나아가갈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요즘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 학교운영측의 일방적인 진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학교가 학생들과 학교측의 적절한 타협으로 발전되어 왔으면 좋겠다.

이승주(정산대 멀티미디어교2)

학교 내 오래된 시설 교체해야

목이 마른듯 지갑에는 뻣뻣한 신권만 있어 당황한 적이 있는가. 학교에 있는 자판기는 신권이 들어가지 않는다. 자판기를 이용해야 할 경우, 신권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 친구들한테 교환을 부탁하거나 아예 이용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수입증지를 뽑을 때 자판기가 신권을 인식하지 못하여 은행까지 가서 돈을 바꿔서 넣어야 하는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제 점점 구권은 사라져 가고 있다. 자판기에 신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폐 인식기를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만해관 독서실에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4층에 책상이 너무 낡고 칸막이가 없어 공부하는 데 좀 불편하다. 동국인의 미래를 빛내줄 학생들의 학습능력 상승을 위해서 책상을 교체해야 하지 않을까.

21세기는 이미지, 디자인의 시대이다. 학교 주변 환경과 건물과 건물사이의 조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박물관 건물의 경우 외관만 보았을 때 도저히 박물관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지경이다. 리모델링 같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라도 각 건물

의 특징을 살려 벽화나 건물 색 변경 등으로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국대학교의 상징적인 건물인 명진관에 대한 불만이 있다. 강의를 듣다보면 화장실 용무가 급한 경우가 있다. 3층에서 수업을 듣는 나는 갑자기 신호가 오게 될 경우 명진관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존재하는 그것도 지하에 위치한 남자화장실까지 애써 급한 표정을 참으며 힘겹게 수십 개의 계단을 내려가야 한다. 명진관의 화장실을 늘려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즉각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염승선(사과대1)

전국대학발명 작품전을 다녀와서

수업이 없는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나가기 위해 부단히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삼성역의 COEX 전시장에서 소모임의 전시가 있기 때문이다.

4학년이라 힘들 거라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맡았던 과 소모임 회장의 직위였다. 어떻게 보면 나의 다음 진로를 위해 정신팀이 뛰어가야만 하는 시기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 나의 대학 생활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기도 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일까 전시회장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왠지 가볍기만 했다.

전국 발명 동아리 연합회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삼성 COEX 전시장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있었다. 우리 소모임의 작품이 다른 학교의 작품들보다 보잘 것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막상 진지하게 작품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의 반응에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듯했다. 전시회에 참여한 다른 학교 학생들도 아마 나와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할 때의 기쁨을 그들도 느끼고 있을 터였다.

그동안 정말 원했던 대학생활의 꿈

을 잊고 있었다. 그것은 하고 싶은 무언가를 맘껏 하겠다는 자유에 대한 열망이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지만 그리 나쁘지 않았던 지난 대학 생활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난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전시회도 슬슬 끝날 무렵에 다다랐다. 전시회의 스태프들과 학생들은 또 내일의 전시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정신없이 바빴던 한 주가 이렇게 마무리 되어가고 있었다.

대학생활의 끝부분에 서있는 나는 다음 주도 역시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까? 만족감에 작은 미소를 지어 본다.

유광성(공과대 기계공4)

Table with 5 columns: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원향. Rows list various food items and their prices for different groups (월, 화, 수, 목, 금).

응급상황, 이럴때 어떻게?? - ③ 열상과 절상. 상처부위는 소독부터 할 것. 개방성 상처를 일컫는 말인 열상과 절상은 상처가 난 모양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데 열상이란 상처의 가장자리가 튀니꼴로 볼 수 있게 생긴 상처로 주로 피부 조직이 심하게 찢겨져 생기는 상처를 말하고, 절상이란 칼에 베이는 등의 수술시 절개 부위와 비슷한 상처로 보통 가장자리가 매끄러운 상처이다.

금주의 식단

# 쥬신구라(忠臣藏)와 인간관계

일본의 에도(江戸)시대는 거의 전쟁이 없었던 평화시대였다. 무사라는 계급이 장군을 필두로 하는 봉건제후(다이묘[大名], 보통 만석 이상의 땅이 생산되는 영지의 독립적인 통치권자)들의 주축을 이루어 통치하고 있었다. 무사가 같은 차고 있었지만 특별히 사용할 일이 없었던 시대가 되고 약 100년 후, 무사들의 집단복수극이라는 사건이 발생한다.



## 달하나 천강에

김 상 수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무사는 능력에 따른 대우를 받으며 주종관계로서 제후에 소속되고, 이들 제후는 다시 장군을 맹주로 하는 막부제에 소속된다. 구조를 갖고 있었다. 막부는 제후를 통제하기 위하여 장군이 사는 에도(도쿄)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무르게 하였고, 제후들은 장군이 있는 에도성의 여러 의식에 참가하게 된다. 평화시대가 지속되면 권위가 앞서가고 의식(예의작법)도 매우 복잡해진다. 제후 사이에는 노소, 신구, 영지의 대소 등의 차이를 알릴 수 있는 데 사건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제가 그만 1년 중 가장 격식이 높은 행사를 하는 에도성에서 기라에게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장군의 명령으로 할복한다. 칼부림으로 인해 아사노는 하루아침에 할복자결을 하고 자신의 영지(赤穂藩[아코방])는 막부에게 몰수되어 버렸으며, 그 밑의 무사들도 졸지에 실업자가 되어 떠도는 신세(浪人[로우닌] 또는 浪士[로우시])가 되었다.

월 14일에 아사노의 원수로 지목된 기라의 에도 저택에 야밤 기습 공격을 하여 기라를 살해함으로써 복수극을 완성한다. 이 중 46인(1명은 이발)은 거사 4일 후 막부의 명령에 의해 모두 할복한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한밤의 복수혈전이고, 설혹한다는 점에서 그런지 눈 내리는 날로 묘사되곤 한다. 그러나 반면으로 47인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견해도 적지 않다.

여기서 47인의 행동의 관하여는 별개로 하고 일단 아사노의 인간관계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자. 미리 아사노가 기라와의 관계를 잘 갖고 있었다든지 적어도 아사노가 꼭 잡고 넘어갔다면, 그 후 자신이 할복을 하거나 영지를 잃거나 나아가 부하들이 1년 이상 떠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으로 에도 한복판에서 복수혈전을 벌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아사노가 기라에게 어떠한 원한을 품었는지 지금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한을 미리 품지 않도록 잘 처신하였다면, 기라의 나이를 생각해서 조금만 참고 넘어 갔다면, 이렇게 큰 대가는 치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아사노에게도 할 말은 많겠지만 자신의 행동이 인간관계에 나타날 수 있는 극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 학과편제 의견수렴 언제됐나

### 사설

‘구조조정’이 캠퍼스 내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달 20일 ‘학과편제 및 정원조정안’이 발표된 이후 학교 곳곳에 학과 폐지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어있고 해당학과 학생들과 교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요즘 대학은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이 중요시 되고 있고 이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 이런 현상은 교육부가 대학들이 특성화된 학문분야에만 초점을 맞춘 영향이 크다. 각 대학이 교육부의 지원을 받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에 학교 차원에서라도 나름 고통을 감수하고 ‘뺄을 꺾는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학과 편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학생과 교수들이 추진과정에서 주축이 되지 못하고 통보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학과편제 시행안을 만들기까지 추진과정에서 학생, 교수들의 의견은 어디에 수렴 됐는지 알 수 없다. 이번 시행안을 6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쳐 발표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지난 달 20일 처음으로 전체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통보되고 최종 결정되기까지 주어진 기간은 겨우 한 달 남짓이다. 현재 총장과 단과대 교수, 학생회가 간담회를 갖고 있지만 시행안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2005년 국제학과 폐지 당시에도 해당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폐과를 통보하고 학과폐지가 결정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학과폐지와 감축이 결정되는 현 상황에서 학생과 교수들이 느끼는 반발심과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또한 학과 폐지 뿐만 아니라 트랙제시행과 관련해서도 구성원들의 동의와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 트랙제는 현재 체제와 확연히 다른 학부중심의 시스템이다. 트랙제 시행과 관련해 학생들과 교수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랙제를 시행하는 것은 무모할 수 있다. 시행하기에 앞서 트랙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시행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내구성원의 동의와 이해를 얻지 못한 구조조정과 개혁은 의미가 없다. 구성원들은 학내 구성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바탕으로 한 개혁을 통해 우리 학교가 발전하기를 바란다. 개혁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총장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 학내구성원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 동국만평



이주현 nitake@dongguk.edu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겸 주간 윤재웅, 편집장 강지혜,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 보리소

### ‘다중이’와의 전쟁

며칠 전 학교 근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캄보디아에서 온 자원봉사 유학생이라는 어린 학생이 사진 스크랩을 펼쳐 보이며 구호기금에 보시할 것을 요청했다. 짧은 순간이지만 의심적은 생각이 들었다. 이 학생이 진짜 유학생일까, 진정 구호기금으로 쓰일까, 혹시 어떤 영벌이 조직의 일원은 아닐까, 얼마를 낼까 말까. 합장을 하는 모습에 친근감을 느낀 나는 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만 원짜리 한 장을 보시했지만 끝까지 의심의 찌꺼기를 지워버리지는 못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는데 같은 행색의 캄보디아 학생들 3~4명이 건강장년층 남자가 운전하는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부지런히 흩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나의 마음은 또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후회, 의심, 믿음, 포기, 위안, 자기만족, 분노, 자책감, 연민, 미움...

습을 바라보면서 관객들은 카타르시스를 만끽한다. 왜 지금 ‘다중이’가 생각나는 걸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이 지녔지만 인정하기 싫은 자기 모순적 양면성을 이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 아닐까. 배우가 보여주는 ‘다중이’의 표정은 어쩌면 참나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분열과 통합의 심리전을 치르고 있는 나의 내면의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선과 악, 체면과 실속, 파괴와 보호, 성(聖)과 속(俗), 보시와 도둑질, 용서와 보복, 희망과 절망... 어느 쪽으로든 조금도 망설임 없이 선택하는 인간이라면 그는 성자(聖者)이거나 혹은 그 반대의 사람이라.

평상심을 저버리고 분별 속에서 방황했던 며칠 전 식당에서의 내 모습이 ‘다중이’와 무엇이 다른가. 구호기금을 모금하던 캄보디아 학생은 망설임 속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미혹한 나의 현주소를 일깨워주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행로에서 마음속 ‘다중이’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부디 선한 마음의 심지를 굳게 하여 주위의 시선이나 환경에 따라서 객진변뇌에 끌려 다니는 피곤한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란다.

어느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에서 ‘다중이’ 코너가 크게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요즘 ‘다중이’라는 말은 이중인격자라는 말보다 더 친숙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듯하다. 행동이나 표정을 갑작스럽게 반대로 바꿈으로써 익살을 떨거나, 정반대의 논리를 한꺼번에 퍼다가 자기모순에 빠지는 허탈한 모

이 학주  
사범대학부속고교 교법사

## 메아리

### 대학교육과 취업

▲ “장기화된 경제침체로 인해 청년실업이 40만명에 육박하는 이때,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3년 전 방영했던 인기 시트콤 ‘논스톱4’에서 유행했던 대사이다.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느껴졌던 청년실업 40만명 수치는 이제 넘어선지 오래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최근 실업률 하락 및 고용률 정체’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15세~24세) 중 415만명이 취업의사가 있으나 취업을 못하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0일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권오규 경제 부총리, 경제 5단체장 주요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간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기업이 대학교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정부와 경제단체가 함께 조사해 평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대학을 평가하는 과정에 기업 인사들이 참여하는 등 대학교육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가르친 인재를 고용하는 입장인 기업의 필요에 맞춰 대학이 인재를 양성하지는 데 동의한 것”이라 밝

혔다. ▲ 대학교육에 있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며 따라 기업의 요구에 맞춘 대학 강의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 합의는 기존의 대학 교육 방향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됐다. 한국 경영자총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이 업무를 파악해 일을 하기까지 기업에 평균 20.3개월 동안 1명당 6천만 원을 들여 신입사원의 적응훈련을 시켜야 했다. 기업이 대학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 이로 인한 지출을 줄이자는 의도로 파악된다. 이는 그동안 우수인재 양성을 목표로 했던 대학 교육의 역할과 위치가 얼마나 비실용적이었던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못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가 있음에도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야 하는 요즘 시대의 불안과 체제의 요인은 비단 대학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대학의 전공교육은 취업에는 유망무실한 취급을 받아왔다. 대학 전공공부와 취업공부를 별도로 여겨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는 취업을 위한 ‘취업과외’라는 말이 보편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 교육은 근 몇 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교육체제, 지금부터 변화가 필요하다.

강지혜 편집장  
iamjh713@dongguk.edu

108 프로젝트 | 신경영시스템 창출, 교육-연구시스템 혁신, 최적의 교육-연구환경 구축, 재정확충 및 건전화, 의학교육 및 병원경영 혁신 등 5대분야 108과제의 혁신을 통해 5개분야의 국내최고, 3개분야의 세계최고 목표를 달성하여 내부구성원과 외부고객이 감동하는 World Wide Dongguk을 구현하려는 프로그램입니다.

# 새백년 새동국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2007년, World Wide Dongguk으로 가는 새로운 백년의 원년! 5개분야 국내 최고, 3개분야 세계 최고! 새로운 동국에서 펼쳐지는 108 프로젝트의 작고 큰 결실의 감동을 함께 하십시오.



##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2007학년도 후기

<p><b>일반대학원</b> gs.dongguk.edu 0212260-886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집과정: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학과간협동과정</li> <li>원서접수: 5.23(수) ~ 6.1(금)</li> <li>전형일: 6.16(토)</li> </ul>	<p><b>영상대학원</b> dic.dongguk.edu 0212260-376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콘텐츠학과, 영화영상학과, 멀티미디어학과</li> <li>원서접수: 5.21(월)~5.25(금)</li> <li>전형일: 6.1(금)~6.2(토)</li> </ul>	<p><b>경영전문대학원(MBA)</b> mba.dongguk.edu 0212260-8884~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eneral MBA(주간/야간/주말), CO-MBA(야간)</li> <li>원서접수: 5.18(금)~5.30(수)</li> <li>전형일: 6.2(토) 14:00</li> </ul>
<p><b>불교대학원(야간)</b> gsbs.dongguk.edu 0212260-3096~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교학과(불교학, 선학, 문화재학과, 불교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호스피스), 생사의례학과</li> <li>원서접수: 5.21(월)~5.31(목)</li> <li>전형일: 6.8(금) 17:00</li> </ul>	<p><b>행정대학원(야간)</b> gsipa.dongguk.edu 0212260-310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학과, 인보·북한학과, 공인행정학과, 복지행정학과</li> <li>원서접수: 5.21(월)~5.26(금)</li> <li>전형일: 6.9(토) 14:00</li> <li>(※계통대: 6.12(화) 19:00)</li> </ul>	<p><b>교육대학원(야간)</b> gsedu.dongguk.edu 0212260-311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학과(교육행정, 상담심리, 유아교육), 교과교육학과</li> <li>원서접수: 5.21(월)~5.25(금)</li> <li>전형일: 6.2(토) 14:00</li> </ul>
<p><b>언론정보산업대학원(야간)</b> gsici.dongguk.edu 0212260-3733~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인쇄출판학과(출판집지전공, 인쇄화상전공)</li> <li>원서접수: 5.28(월)~6.12(화)</li> <li>전형일: 6.16(토) 10:00</li> </ul>	<p><b>문화예술대학원(야간)</b> gsca.dongguk.edu 0212260-3606~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예창작학과, 공연영상예술학과, 불교예술문화학과, 예술경영학과, 예술치료학과</li> <li>원서접수: 5.28(월)~6.5(화)</li> <li>전형일: 6.9(토) 10:00</li> </ul>	<p><b>국제정보대학원(야간)</b> gsiat.dongguk.edu 0212260-3733~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보호학과, 영어학과, 번역학과, IT-Business학과</li> <li>원서접수: 5.28(월)~6.13(수)</li> <li>전형일: 6.16(토) 10:00</li> </ul>
<p><b>불교문화대학원(경주)</b> www.dongguk.ac.kr 0541770-2393~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교학과(불교학, 선학), 불교예술학과(국악, 불교미술), 장례문화학과, 불교상담학과</li> <li>원서접수: 6.11(월)~6.22(금)</li> <li>전형일: 6.23(토) 14:00</li> </ul>	<p><b>사회과학대학원(경주)</b> www.dongguk.ac.kr 0541770-2093~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학과(정책개발, 지방자치), 경영학과(경영, 사무관리), 법학과, 국제관계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찰행정학과(신설), 사회복지학과</li> <li>원서접수: 6.4(월)~6.15(금)</li> <li>전형일: 6.16(토) 14:00</li> </ul>	



# Fresh B! 새로운 바람에 몸을 맡겨라!

“아! 재야? 재바라? 재바라! 승 아제? 모지? 사바? 하!” 압호 같으면서도 감정을 음미하며 읽으면 열주 뜻이 통하는 이 문장은 바로 반아신경의 끝부분에 나오는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아제 모지 사바하’라는 주문을 띄어쓰기해 다른 각도로 바라본 문구이다. 이는 오늘 이루어지는 ‘Fresh B’ 행사의 부제이자 불교를 새로운 각도로 재미있게 바라본 것이다. 후문 담벼락에 커다랗게 붙은 현수막의 소용돌이 또한 부처가 경협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새롭게 표현했다.

이러한 신선한 시도를 하는 이번 행사의 타이틀 ‘Fresh B’는 ‘Fresh blow & Fresh Buddhism’의 약자로 그간 불교 행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미로 오늘 진행되는 세 가지 행사의 총칭이다. 오늘 진행되는 ‘Fresh B’ 행사의 1부는 오후 5시부터 체육관에서 열리는 수계식으로 월정사 주지스님인 정법 큰스님이 전제사로 참가하며 지난 4일까지 신정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어서 2부에서는 6시 30분부터 팔정도에서 연등 점등식을 거행하는데, 학교 곳곳에 설치돼 있던 연등이 불상 앞에서부터 일제히 밝혀지게 된다.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도 3부인 CBMF(Contemporary Buddhist

Music Festival, 이하 CBMF)로 오후 7시 30분부터 만해광장에서 진행되는 불교음악 콘서트이다.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CBMF는 대중을 아우르는 현대의 불교음악 축제를 목표로 CBMF와 대중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불교문화행사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이번 공연은 지난해 서울라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우리학교 공연기획단 C.WAVE



가 기획한 것이다. 애초에는 기획안을 학교 홈페이지의 총장과의 대화에 학생의견으로 접수했지만 안타깝게도 선정이 되지 못했다. 마침 이를 전해들은 정각원에서 공연을 진행해 보자고 제의를 해와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연준비를 할 수 있었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손승이(정외3) 양은 “축제를 재미있게 만들면서 학교의 이미지를 쇄신시키고, 우리학교가 불교의 메카라는 점도 살리고 싶었다”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이번 공연이 불교를 기반으로 했지만 모든 행사가 불교일색일 것이란 편견은 버려도 좋다. 불교색채를 띤 음악보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즐거운 공연을 만들겠다는 MC sniper와 데프콘, 누구나 편안히 즐길 수 있고 랩을 가미한 찬불가를 선보이는 SPC, 분위기를 한껏 띄우겠다는 힙합 동아리 AJAX, 찬불가뿐만 아니라 귀엽고 발랄한 노래까지 준비한 대한소년 소녀합창단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이에 송혜영(행정2)양은 “신나는 공연과 함께 한다면 불교에 대한 거부감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했다. 한편 만해광장 입구에서는 여러 가지 부대 행사가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 불교 동아리 ‘동불’과 불교대 학생회가 연꽃잎 종이와 종이컵으로 연등을 만드는 ‘컵등 만들기’ 행사를 준비했으며 보성 다원에서 차 보시를 한다. C.WAVE에서는 중

이에 소원을 써서 만해광장 주위의 나무에 묶는 ‘우리 소원 빌어요-바람에 날아가는 나의 바람’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마련했다. 불교미술학과 학생들도 불교미술 전시회를 기획했다.

규모가 큰 행사를 기획한 만큼 이번 공연의 준비가 순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정각원이나 학교 측에서 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았던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계속 줄어들었고 비전문가인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준비하면서 처음의 기획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힘든 일도 많았다. 하지만 C.WAVE단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참여해주기만 해도 기쁠 것”이라며 “이번 공연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교와 우리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새로워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점점 사회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독특한 마케팅이 필요한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학교도 불교고유의 색깔을 놓치지 않되 충분히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Fresh B’ 행사를 기획했다.

소문난 축제에는 소문난 학생들이 있듯이 이번 행사가 우리만의 특색 있는 축제로 계속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것이 이번 행사를 더욱 의미 있게 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문서영 기자  
syooob@dongguk.edu

## 내 머릿속 그 작품 - 헨델의 '사라방드'

### 젊은날의 소중한 추억이 된 사라방드



▲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헨델(맨 왼쪽)과 헨델의 사라방드를 연주한 음반들.

물이 흘러도 물 아래 바위들은 그대로 있듯 세월이 흘러도 늘 남아 있는 것, 바로 추억이다. 이렇듯, 세월의 흐름은 늘 우리에게 수많은 추억과 기억들을 남겨놓는다. 회화동 대학로 끝자락의 어느 버스 정류장 앞. 내 기억 속의 ‘그 언젠가’에는 나지막하고 허름한 이층짜리 건물 안에 아침의 수줍은 햇살이 하얀 손으로 레몬 빛 소파를 쓰다듬던 그런 아늑한 공간이 있었다. 사라방드(sarabande). 세월 저편으로 사라진 그곳은 언제나 커피 향 가득한 그저 평범한 찻집이었지만, 내 기억 속에는 독일 출생의 영국 작곡가 헨델(Georg Friedrich Handel, 1685~1759)의 사라방드만이 가득했던 그런 곳으로 자리 잡고 있다. 건물 외벽에 걸린 간판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일부러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방드를 좀처럼 들을 수 없었던 그런 곳이었으면서도 말이다.

사라방드는 원래 15세기의 스페인에서 유래한 노래가 곁들여진 세 박자 계통의 빠른 춤곡이었으나, 16세기경에 프랑스의 궁정에 소개되고, 17세기에 영국에 전해지면서 근엄하고도 장중한 바로크 양식으로 편곡된 유럽의 고전모음곡(Suite) 중의 한 형식이다.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사라방드는 헨델의 사라방드(Harpichord Suite No.3 in D Minor, HWV 428 - 'Sarabande')로서, 특히 관현악으로 연주되는 사라방드에서는 곡 전체를 압도하는 첼발로의 선율이 마음을 시리게 한다. 또한 두 박자마다 강하게 연주되는 나머지 악기들의 강렬함은 커다란 북소리가 가슴을 때리는 듯 정열적이지만 정작 이를 듣는 이에게는 비장함마저 감동케 한다.

헨델의 사라방드는 춤곡이라기보다 연주곡

에 가깝다. 실제로 헨델은 연주곡으로서 이 곡을 작곡하였다고 한다.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장엄하고 비장한 장단에 누가 춤을 출 수 있을까 의아해 하였다. 실제 이 곡이 생각나는 때는 춤이라도 추고 싶을 만큼 기쁠 때가 아니라 그 반대일 때였다. 우울할 때 듣는 슬픈 음악이 마음에 정화하듯, 너무나 절망하여 슬픔조차 느끼지 못할 때, 이 비장한 사라방드를 들으면서 오히려 생활의 활력을 얻었던 기억이 있다. 나는 관현악의 사라방드를 무척 좋아하지만 소품 같은 피아노 연주곡, 펌페라의 흥취를 가지는 나나무스쿠리(Nana Mouskouri)의 성악곡도 원곡의 장엄함을 잃지 않고 있다. 첼로·기타 등 각종 악기를 위해 편곡된 곡들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전자기타로 연주된 록(Rock) 스타일 버전도 인기를 끄는 것을 보면, 비애라는 인간의 본능을 소화해내고 이겨 가는 방식은 늘 발전해 간다는 것을 느낀다.

젊은 날, 괴로움과 두려움을 주체하지 못할 때 찾았던 헨델의 사라방드. 이 곡을 듣고 있으면 밤하늘의 소나미 속에서 허영없이 울고 있는 나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하얀 파도가 부서지는 바닷가에 우두커니 서서 모든 아픔을 훌훌 털 때에 이 사라방드가 함께 있는 듯하였다. 돌아보면 언제나 찬란하였던 젊은 시절, 젊어서 더 많았을 괴로움을 오히려 현재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해 준 헨델의 사라방드. 나는 그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박선홍(중어중문학) 교수

## 문화단신

### 중앙도서관 글벗상 첫 시상

지난 7일 글벗상 시상식이 중앙도서관장에서 있었다. 박은지(국문학과 석사 1학기), 김지혜(불교2), 김미화(교육3) 학생이 글벗상을 수여받았다.

기존에 일 년에 한 번 수여했던 다독상이 3월과 9월을 제외한 매월 초와 학기마다 한 번씩 시상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글벗상의 ‘글벗’은 ‘행복한 글 읽기’라는 뜻으로 다독이라는 말보다 친근한 인상을 주기 위해 지은 것이다.

글벗상은 도서관 자료이용을 권장하고 적극적인 이용자들을 포상함으로써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선정 대상자는 학부 재학생 2명, 대학원 재학생 1명이며, 대출기간 또는 대출횟수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1등 10만원, 2등 5만원권의 도서상품권이 수여되며 수상자가 도서관 홈페이지 'Book Review'란에 독후감을 게재할 경우 대출가능 권수를 확대해 준다. 또한 학기별 수상자에게는 디카, MP3, 전자사전 등을 시상할 예정이다.

지난 동대신문 제1443호 9면 일진 김기동 사장의 인터뷰기사 중 '카타르'를 '카사바'로, '인산'을 '일산'으로 정정합니다.

## 사회교육원 여름방학 특강 개설

개설강좌명	수업기간 및 시간	모집 인원	수강료	비고
돈이 되는 펀드, 펀드, 펀드	6. 20~7. 5(6회, 12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3시~5시	40명	100,000원	펀드의 이해부터 실전펀드 투자 테크닉까지
아동미술심리지도사 초급반	7. 4~8. 22(7.5주 45시간) 매주 수요일 10:00-16:40	30명	300,000원	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 과정임 (아동미술심리지도사 180시간 이수)
아동미술심리지도사 중급반	7. 7~8. 25(7.5주 45시간) 매주 토요일 10:00-16:40	30명	300,000원	
주산활용수학교육사 기초반	7. 2~8. 22(7.5주 45시간) 주중반: 월, 수 10:00 ~ 12:50 주말반: 토 10:00 ~ 16:50	40명	300,000원	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 과정임 (주산활용수학교육사 90시간 이수)
주산활용수학교육사 심화반	7. 3~8. 23(7.5주 45시간) 주중반: 화, 목 10:00 ~ 12:50	40명	300,000원	

접수기간 : 2007. 6. 1(금) ~ 6. 29(금)(단, 돈이되는 펀드,펀드,펀드는 6월 15일 마감)

접수방법 : 계좌이체 : 신한 140-002-017211 동국대학교

카드수납 :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대상자 : 일반인, 대학생, 교직원

문의처 : 2260-3730/3729

사회교육원 홈페이지 : http://edulife.dongguk.edu

### 아동미술심리지도사 여름방학 특강 안내

미술치료란, 매체를 경험하며 직업과정속에서 내면과 무의식을 탐색하고 내면적 갈등을 스스로 치유해가는 과정입니다. 아동의 미술적 심리발달을 연구하여 나아가서는 노년기까지의 전 인간의 문해적 갈등을 예방, 치유하며 자각중도 준비합니다.

교육기간 : 2007년 7월 4일 ~ 8월 30일 (7.5주, 45시간)

강의시간 : 초급반 수요일 10:00 ~ 16:40

중급반 토요일 10:00 ~ 16:40

\* 초급반, 중급반 동시 수강 가능합니다.

수강료 : 과목당 300,000원

특기 사항 :

-180시간 이수 후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아동미술심리지도사 자격검정시험 응시자격 부여

자격취득요건 :

1. 본 과정 180시간 이수자로 자격기본법 182조 결정사유가 없는 자

2. 전문대학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접수기간 : 2007. 6. 1(금) ~ 6. 29(금) 09:00 ~ 17:00

접수처 :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접수방법 : 계좌입금

(신한) 계좌번호 313-00-004148 동국대학교

문의처 : 2260 ~ 3730 / 3729

### 주산활용수학교육사 여름방학 특강 안내

교육목표 : 능이학습도구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주산을 활용하여 유아, 초등학생들에게 기초수학

지도와 수준 높은 교사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기간 : 2007년 7월 2일 ~ 8월 30일 (7.5주, 45시간)

강의시간 : 기초반 주중반 월, 수요일 10:00 ~ 12:50

중급반 주중반 화, 목요일 10:00 ~ 12:50

수강료 : 300,000원

특기 사항 : 90시간 이수 후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주산활용수학교육사 자격검정시험 응시자격 부여

자격취득요건 : 1. 본 과정 90시간 이수자로 자격기본법 182조 결정사유가 없는 자

2. 동국대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접수기간 : 2007. 6. 1(금) ~ 6. 29(금) 09:00 ~ 17:00

접수처 :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접수방법 : 계좌입금

(신한) 계좌번호 313-00-004148 동국대학교

문의처 : 2260 ~ 3730 / 3729

**여름방학 특강**  
**돈 벌어주는 펀드 펀드 펀드!!!**

강사 : 오윤관 (메리츠증권남양대지점 FC, 금융자산관리사, 증권투자 상담사, 신용거래상담사, 펀드, 청약회 포럼하는 법 저자)

개강 : 2007. 6. 20 (수) 15:00 ~ 17:00(6주강의)

접수기간 : 2007. 6. 1(금) ~ 6. 15(금)  
수강료 : 100,000  
접수처 :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대상자 : 일반인, 대학생, 교직원

**커리큘럼**

강의일자	강의 제목	주요 강의 내용
1강 6월20일	펀드투자의 이해	저축과 투자의 차이 돈을 벌어주는 방법의 힘 - 복리 왜 펀드 투자를 해야 하는가?
2강 6월 27일	펀드 기초 다지기 1	펀드의 구조 및 특성 펀드의 종류 및 구분
3강 7월 4일	펀드 기초 다지기 2	스타일 박스의 이해 시장 국면별 펀드 성과의 차이
4강 7월11일	펀드투자로 목돈 만들기	왜 적립식으로 펀드에 투자하는가? 적립식 펀드투자의 이점과 특성
5강 7월18일	펀드투자로 목돈 굴리기	거저서 투자 프로세스 이해 핵심펀드와 전략펀드의 차이
6강 7월25일	실전 펀드투자 테크닉	대안펀드의 종류 및 특징 저축에서 투자로 넘어가는 정량관리펀드 - FLS 해부 실전 펀드투자에 필요한 기초지식 다지기